

# 광주지역 1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어둡다

###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분기보다 10p하락 84 내수 부진·美 보호무역주의 확대 우려 영향

1분기 광주지역 제조업체 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광주지역 1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분기(94)보다 10p 하락한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해외생산 확대에 인한 생산·투자 감소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체감경기가 세 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BSI는 수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2024년 4분기 실적(64) 또한 지난 분기(71)보다 7p 하락하면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했는데 이 역시 대내외 경기 위축 가운데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생산 판매 부진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영향목별로는 매출액(101→85), 영업이익(90→78), 설비투자(95→90), 자금사정(75→82) 모두 원자재가격 급등

과 더불어 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인해 2025년 1분기 전망이 전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분기 실적 또한 매출액(75→65), 영업이익(63→58), 설비투자(102→82), 자금사정(61→67)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했는데 실제로 응답 업체들의 70.4%는 2024년도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 대비 미달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7.6%,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 대비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들은 그 핵심요인이 '내수부진(48.9%)'이라고 답했으며 이외에 '수출부진(20.5%)'과 '원자재가격(20.5%)', '고환율(2.3%)', '고금리(1.1%)' 등이 주된 요인으로 조사됐다.

투자실적과 관련해서도 '연초 목표 대비 미달될 것'이라는 답변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35.2%)',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13.6%)'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실적이 연초 목표 대비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들은 그 핵심요인으로 '영업실적 악화(62.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기둔화 우려(29.7%)'와 '투



고물가에 설선품 '양극화'

고물가로 백화점·대형마트의 설선품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백화점에서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원 미만 선물 물량이 지난 설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원 미만 선물 비중을 늘렸다. 특히 9천900원짜리 김과 양말 등 '초가성비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비용 증가(7.8%)' 또한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통신(88), 자동차·부품(74), 기계·장비(60), 철강·금속(94), 화학·고무·플라스틱(79), 유리·시멘트(33)는 2025년 1분기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식음료(108)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망치가 크게 상승했던 전분기(75→143)에 비해서는 3p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돌면서 다음 분기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제품·통신(104→88)'은 지역 가전산업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가 우려되면서 '자동차·부품(81→74)'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과 전기차 등 완성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다음 분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계·장비(89→60)'는 전방산업 업황 부진과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화학·고무·플라스틱(82→79)'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악화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유리·시멘트(100→33)'는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는 데다 건설업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 따라 전망치가 대폭 하락했다.

'철강·금속(83→94)'은 글로벌 철강 수요의 더딘 회복세와 중국 철강 점유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식음료(143→108)'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전망치가 하락했으나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과 명절특수 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면서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77→67)은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과 더불어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96→86) 역시 전방산업 업황 부진과 대기업의 생산 투자 둔화 등으로 2025년 1분기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규모별로는 수출기업(112→85)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들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강화 추세 등으로 내수기업(91→84)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과 더불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5년 1분기를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들의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국제정세 불안 또한 심화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축이 예상되는 산업들의 내수 진작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각적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 해양에너지, 지역 인재 채용 청년 고용 앞장

### 2025년 신입 입사식...10명 선발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기업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발맞춰 최근 신입사원 10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해양에너지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 및 임원면접을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선발됐다. (사진)

4개월 동안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인턴십 과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번 채용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인재를 발굴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희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해양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해양에너지의 지속성장을 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정승윤기자

## 광주 경제계,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조문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일 광주 5·18 민주 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광주 경제단체와 협회장 등 120명과 함께 희생자분들을 추모했다. (사진)

이날 조문에는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과 이정권 중소기업융합회 광주 전남연합회장, 김용구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 박병철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임영우 선한기업 100원탁회의 회장, 황정연 광주시 유치원 연합회장, 김태운 무등산 여성CEO클럽 회장, 최선미 광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한국광합산업진흥회, 광주의료연합



등 14개 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이동훈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임광문 KPS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선광 (주)대성포장산업 회장, 김영근 (주)송학토건 대표이사 외 한국전력 관계자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등의

52명의 대표이사가 조문에 동참했다. 양진석 광주경영총회장은 조문 후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문의 : 062)650-2099